

## 22개 기업에 약 29억원 지원

우리 협회는 '96년부터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쟁력강화 기반기술개발사업의 SW분야 주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2년째 민간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 공급기반이 열악한 초고속관련 시스템의 자생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총 소요연구비 중 상당부분을 정부 재정인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서 주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의 시행은 매년 1월초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곧바로 일간지에 사업시행공고를 내게 되고, 2월경 사업설명회를 거쳐 늦어도 3월중순까지는 과제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지원분야는 크게 접속·교환·전송분야와 망관리분야 등 2개분야로 개발과제를 접수받게 되면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사전평가와 공급기반강화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대상과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과제와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다.

'96년도 협회는 SW분야에 지원을 신청한 50개기업중 20개기업을 선정하여 모두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7년에도 3월에 사업계획을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3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약 한달간에 걸쳐 37개기업으로부터 과제를 신청·접수하였고 신규로 접수된 과제 및 '96년도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5월에 전문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갖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급기반강화촉진협의회의 종합심의 및 정보통신부 최종확정을 통해 22개기업에 약 29억원을 지원하고 '97년도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이 사업에 영세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관계로 정부출연금 보전에 적지 않은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1차년도 사업이 종결된 지금 참여업체 대다수가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중소기업체의 자생력 확보에 더한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과감한 개선과 아울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재찬 기획예산부 부장〉